



고려도토 깨끗한 독배기

“10년 연구 끝에 내열성·비흡수성 ‘두 토끼’ 잡았죠”

손완호 고려도토 대표
“세계 잔류 걱정 없어”

열에 견디는 내열성, 담긴 내용을 흡수하지 않는 성질인 비흡수성. 이 두 가지 특성은 도자기 업계에서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로 불린다. 열에 잘 견디도록 하면 흡수성이 강해지고, 흡수하지 않도록 하면 열에 약해진다. 방법을 학계에 물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10년을 매달리니 그 어렵다는 두 마리 토끼가 잡히더군요.” 손완호 고려도토 대표가 ‘깨끗한 독배기’(깨끗)를 두드리며 웃었다. 탁한 소리 대신 도자기에서 나는 맑은 소리가 났다. 깨끗은 지난 5월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부터 흡수율 0%라는 공식 인증을 받았다. “갈비탕 삼계탕 등 우리 대표 음식을 위생 걱정 없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 잡는 데 10년
보통 독배기를 씻을 때 세제 대신 싼뜨물이나 베이킹소다를 쓴다. 독배기 표면에 난 무수한 구멍 때문

이다. 이런 구멍이 장을 담글 때는 발효를 돕지만 음식을 끓여먹는 데는 단점이 된다. 세제나 남은 음식물이 구멍으로 스며든다. 틈새에서 곰팡이가 피기도 한다. 일반 독배기 흡수율은 1~5% 정도다.

1986년 설립된 고려도토는 도자기를 굽는 데 필요한 흙(도토)을 전문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2000년대 초 업계에서 흡수율 0% 이면서도 열에 강한 독배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흙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다. 음식점에서 독배기 관리를 소홀히 해 위생 문제가 불거졌다. 국내 독배기 시장이 포화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도 필요했다.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덤벼들었지만 이런 흙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흙이 될 새로운 배합과 원료를 찾는 데만 7년이 걸렸다.

흙을 만들고 나니 유약이 발생이었다. 가열 중 발라놓은 유약이 갈라지거나 찢어졌다. 새로운 흙과 기존 유약이 팽창하는 속도가 서로 다른 탓이었다. 지난해 7월에야 새로운 흙에 사용할 수 있는 유약을 찾아냈다. 그런데 10년 전에 주



손완호 고려도토 대표가 ‘깨끗한 독배기’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문했던 업체들이 말을 바꿨다. 수배 이상 오른 가격 때문이었다. 손 대표는 “거래처가 없어졌다고 10년의 결과물을 포기할 수 없었다”며 “깨끗은 도자기 흙만 만들던 고려도토가 처음으로 제작한 그릇”이라고 설명했다.

◆가스비 아껴주는 독배기
업소용 깨끗은 지난 2월에, 가정용 깨끗은 6월에 내놨다. 올해에

만 8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매달 주문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위생상 우수해도 경제성이 떨어지면 음식점에서 쓰기 어렵다. 손 대표는 “깨끗수명이 기존 업소용 독배기보다 6배 이상 더 길다 보니 깨끗이 2~3배 더 비싸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일반 가정에서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알앤지-웹인증 보안 출로그림 시스템(웹스) 070-4077-0769 △고려도토-깨끗한독배기 (055)355-1679 △제오메이드-안전도어시스템 (032)245-4712 △한성비씨-스프레이형 간이소화기 EASY119 (055)295-3173

열을 전달하는 속도가 빨라 연료비용을 21%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인기 비결로 꼽힌다.

손 대표는 “깨끗을 사용하는 음식점이 늘어나 독배기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며 “깨끗을 쓰는 음식점에는 인증 스티커를 배포해 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영=이우상기자 idol@hankyung.com

“한솔제지와 아트윈 합병은 감열지 챔피언 도전 포석”

이상훈 한솔제지 대표
“2020년 매출 2조원 달성”



사업 부문의 지속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쇄용지는 최

“한솔제지와 한솔아트윈제지의 합병은 고부가가치 지종인 감열지 분야의 글로벌 챔피언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한솔제지의 한솔아트윈제지 흡수합병 결정(본지26일자A14면 참조)에 대해 이상훈 한솔제지 대표(사진)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솔제지가 감열지 사업을 세계 1위로 육성키로 하고 감열지 설비의 최적지인 한솔아트윈제지의 신산공장을 활용하기 위해 한솔아트윈제지를 합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사는 지난 25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을 결의했다. 한솔제지가 한솔아트윈제지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며 내년 1월 각사의 주식을 거쳐 3월 1일자로 합병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합병 후 과감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감열지 분야 세계 1위 지위를 확보해 2020년 매출 2조원, 영업이익 16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병은 한솔그룹 내 제지

근 전 세계적으로 연간 평균 3.5% 정도 수요가 줄고 있어 ‘탈인쇄용지 전략’이 필요할 상황이다.

이 대표는 “감열지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여서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솔제지는 이번 합병과 함께 신산공장에 연간 13.3만 t 규모의 감열지 설비 전환에 투자하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한솔제지는 2019년부터 연간 32만 t 생산체제를 갖추게 돼 세계 1위 업체인 일본의 오지제지와 2위인 독일의 쾰러사를 제치고 세계 1위 감열지 업체로 거듭나면서 확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모르쇠’ 일관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현장에서
이지현 기자
바이오텔루브



“청와대 약품 구입에 관여하는 사람은 경호실 소속 의무실장입니다. 저는 비서실 소속으로 결제 라인에 속해 있지 않아 어떤 약을 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26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 주치의 시절 진료 관련 의혹이 커지자 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서다. 쏟아지는 질문에 서원장은 대부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의혹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원장은 2014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주치를 지냈다. 이 기간 청와대는 ‘고산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구입했다.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리푸로 주사제, 전립선비대증

과 탈모 치료에 쓰이는 프로스카도 샀다.

청와대 의무실에서 산 각종 마취제는 잘못 사용하면 대통령에게 직접 위해가 될 수 있다. 프로스카는 호르몬 교란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여성은 손으로 만지는 것도 금지된다.

서원장은 약품 구입 내역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비아그라 외에 모두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주치의 시절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약이 반입되고 있었는데도 까맣게 몰랐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비아그라와 팔팔정, 프로스카 구입 이유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한 의사는 “고산병에 비아그라를 쓰는 일은 있어도 팔팔정을 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의사들이 흔히 처방하는 패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들 약은 모두 사용설명서에 여성에게 처방하지 말라고 돼 있다. 프로스카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의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남성의 전립선비대증이나 탈모 치료를 위해 청와대 의무실이 전문의약품을 비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원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동네의원이었던 김영재 의원과 인연을 맺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 서원장은 “김 원장 부인인 의료기기회사 대표 박모씨가(자신들이 개발한) 성형용 실을 써달라며 찾아와 성형외과를 연결해줬다”며 “최씨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해당 의원과 의료기기회사는 의료계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다. 이후 서원장은 이 실을 산부인과 내시경 수술 봉합용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전문의 자격도 없는 김 원장을 병원 강남센터 성형외과 외래교수로 외출했다가 2주 뒤 해촉했다. 김 원장 위촉은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서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더욱 커지는 배경이다.

bluesky@hankyung.com

영창뮤직, 컴퓨터작업 특화된 디지털 피아노 개발

교육 기능도 탑재

영창뮤직이 스마트폰 연결에 특화된 디지털 피아노(모델명 키즈와 일 MP120-사진)를 개발했다.

MP120은 일반 연주 기능 위주의 피아노와 달리 컴퓨터 음악 작업에 방점을 뒀다. 스마트폰이나 MP3 플레이어는 물론 노트북과도 연결할 수 있다. ‘스마트 레코딩’ 기능을 통해 외부접속 없이 연



주한 곡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기능이 탑재된 것도 특징이다. 바이엘과 체르니, 소나타네 같은 대표적인 음악교재 전곡이 내장됐다. 왼손과 오른손을 따로 연습하는 ‘레슨 모드’도 포함됐다.

주요 음원으로는 전문가용 신시사이저 제품에서 추출한 독일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와 하모드 오르간 소리가 쓰였다.

영창뮤직 관계자는 “시장에 경쟁모델이 없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제품”이라며 “컴퓨터와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음악환경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우상기자 idol@hankyung.com

모습이나

‘강한 기업을 만드는 스마트 러닝’ 과정

강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까. 강한 직원을 육성해야 신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도 냅니다. 온라인 교육기관인 알파코와 한국경제신문사 자회사인 한경BP가 업무 공백과 비용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강한 기업을 만드는 스마트 러닝’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수강자 모두에게 교육용 태블릿PC(삼성 갤럭시 탭 A.7.0)와 기업에 꼭 필요한 서적을 제공합니다. ●교육 내용과 비용 ●시리즈: 직원의 열정 끌어내

기. 똑똑한 팀을 만드는 비법,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경영 전략, 회계와 친해지는 지름길(4개월 과정 39만 9000원 전액 환급) ●시리즈2: 현장에서 답 찾아가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 최고경영자(CEO) 마인드로 일해야 하는 이유(3개월 과정 40만 2000원 전액 환급) ●문의: 한경BP·알파코 스마트러닝사업본부 (02)2163-5751, 5733~4

한경·THE WALL STREET JOURNAL

글로벌 대화에서 빠지지 마세요



wsj.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온라인판을 구독하면 The Wall Street Journal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